

敬啓

尊敬하는 議員님께 不肖, 憲法改正에 관한 意見書を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同封한 意見書는 8月末에 脫稿하여 9月10日頃 印刷을 끝낸 것입니다만 그간 혹시나 憲特의 合意改憲案이 마련되지 않나 하고 매일같이 新聞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憲特에서 和氣애애하게 合意改憲案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그 內容이야 어떻든, 政治의 門外漢인 제가 만든 意見書 따위는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妥協의 氣運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意見書도, 지금 읽어보니, 改憲案에 대한 內容把握과 政治狀況의 認識에서 조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만, 三黨의 大妥協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習作과도 같은 이 意見書나마도 혹시 무슨 參考가 되지않나 하는, 안타까운 心情으로 提出하기로 하였습니다.

議員님께서 너그럽게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意見書에도 이번에 合意改憲이 안되면 우리는 豫測할 수 없는 破局을 맞이 할수도 있다는 깊은 念慮를 담고 있습니다만, 最近 갑자기 三黨의 責任者 입에서 合意改憲이 안되면 우리 모두 破局이라는 낱말이 서슴없이 튀어 나오는 것을 보니 정녕 時局은 重大한 局面을 맞고 있는것 같아 不安하기만 합니다.

다만 9月20日 화려하게 幕을 올린 아시안게임은 우리의 不安을 잠시 잊게하여 줍니다만,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祝祭라는 次元을 넘어서 政治人에게도 큰 教訓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의 그 많은 種族과 政治理念의 差異를 克服하고 人類의 友愛와 前進를 약속하는 것인데 어찌 單一民族인 우리 國民의 友愛와 前進를 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안게임의 和合과 前進의 精神을 우리 國民의 和合과 前進의 精神으로 昇化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0月5日 이후 發展된 韓國의 印象을 안고 自國에 돌아갈 아시아인에게, 韓國에서 國民的 和合으로 改憲案 合意에 到達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여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꽃피운 아시안게임의 열매를 맺고 30億 아시아인의 가슴속 깊이 韓國人을 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저기 길목마다 서 있는 Ever Onward 라는 口號가 눈에 부딪힙니다. 永遠한 前進은 人類의 自由와 平等을 向한, 永遠한 前進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서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政治싸움이 再演되어 거리는 온통 데모와 催淚彈으로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하여 진다면, 모처럼 國力을 다하여 치룬 우리의 아시안 祝祭는 그 意義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和合과 妥協 이상가는 政治規範도 倫理章典도 없다고 믿읍니다. 議員님께서서는 政治人이자 人間이기도 하므로

黨의 政治的 目標와 人間的인 苦悶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읍니다만, 정말로 이번만은 허심탄회하게 하나로 묶어진 憲法
改正案을 만들어 民主大道를 닦도록 온갖 精誠을 다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議員님의 무궁한 發展과 幸運을 빕니다.

1986. 9. 2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北阿峴洞 1-354

文 仁 龜 再拜

玄敬大 의원 貴下